심층분석 브라질의 정치와 자원

한-브라질 관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전 홍 조

1.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미래의 땅”, “기회의 나라”, “내일의 나라”, 이 모두는 학술적으로, 혹은 골드만삭스처럼 미래부가가치를 겨냥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혹은 문화예술적인 상상력에서 브라질의 잠재력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은 브라질하면 대개 정열적인 삼바 춤, 카니발 축제, 세계 최강의 축구, 아마존 등을 연상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이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 주목받자, 우리에게도 인구 약 2억의 거대 시장, 자원과 에너지 부국,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부쩍 부각되고 있다.

2009년은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가 깊은 해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남미국가로서는 최초로 브라질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왔다[1]. 특히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과 2005년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관계는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넘어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한-브 수교 50주년 기념 엠블럼

전통적으로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정책을 취하면서,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양국간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에 기초한 실질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해 왔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천명해 왔다.

2004년 포괄적 협력관계 설정 이후,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더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도 양국 간 교역규모가 100억불 시대에 진입[2]함으로써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멕시코에 이어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간 양국은 5차례의 정상 상호방문[3]을 실현하였고, 총 6회의

---

1) 양국은 구체적으로 1959년 10월 31일에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1962년 7월 주브라질 상주대사관 개설, 1965년 5월 주한 브라질대사관을 각각 개설하였다.

2) 브라질과의 교역규모는 2003년 28억불에서 2007년에 63억불, 2008년 103억불(우리 수출 59.2억불, 우리 수입 43.8억불)로 증대되어 왔다. 2008년 현재 브라질은 한국의 16위 수출국이자 20위 수입국이며, 한국은 브라질의 17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이다.

3)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 9월 브라질을 방문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2001년 1월 카르도주 대통령이 최초로 국빈 방한하였다.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 양자 제도적·법률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무역, 문화, 이중과세, 과학기술협력, 범죄인인도, 투자보장, 관광, 항공, 원자력협력, 형사사법공조, 사증면제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우리 동포 진출국이다. 1963년 최초로 브라질에 이주한 이후 오늘날 브라질 최대도시 상파울루 등에는 우리 교민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 동포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브라질 사회에 진출하였고, 여성의류 패션시장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교민은 브라질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양국을 잇는 문화적 이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국 국민들 사이의 교류는 2008년 6월 우리 국적기의 상파울루 직항로 취항 재개로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페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회의에 참석한 기회를 타서 브라질을 공식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원 및 에너지협력 등 경제외교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룰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브라질의 위상과 잠재적 저력이 자연스럽게 재조명되었다. 브라질은 지난 50년간 그랬지만 미래에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의 땅으로 확인된 것이다.

2. 브라질과의 관계발전의 의미와 중요성

그렇다면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약 70%대의 대외의존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에게 브라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간략

히 말하자면 우리의 시장으로서, 에너지·자원의 보고로서, 산업 협력 동반자로서, 또 국제무대의 협력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첫째, 브라질은 21세기에 부상하는 대표적 국가군인 BRICs의 일원으로 블루오션의 신흥시장이다. 인구 약 2억, GDP 1조6천20억 달러 규모로 중남미 최대 시장[4)]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에 힘입은 구매력 증가도 주목된다. 이에 더하여 룰라 행정부가 이룩한 정치·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브라질은 우리의 자원·에너지 외교의 매력적 파트너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면 브라질은 세계의 곳간 또는 창고[5)]라고 할 수도 있다. 세계 제5위의 영토를 가진(한반도 39배)[6)] 브라질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산림자원[7)]과 남미 광물자원의 47%를 차지하는 풍부한 지하 및 천연자원[8)]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바이오에탄올 수출량의 약 80%, 생산량의 약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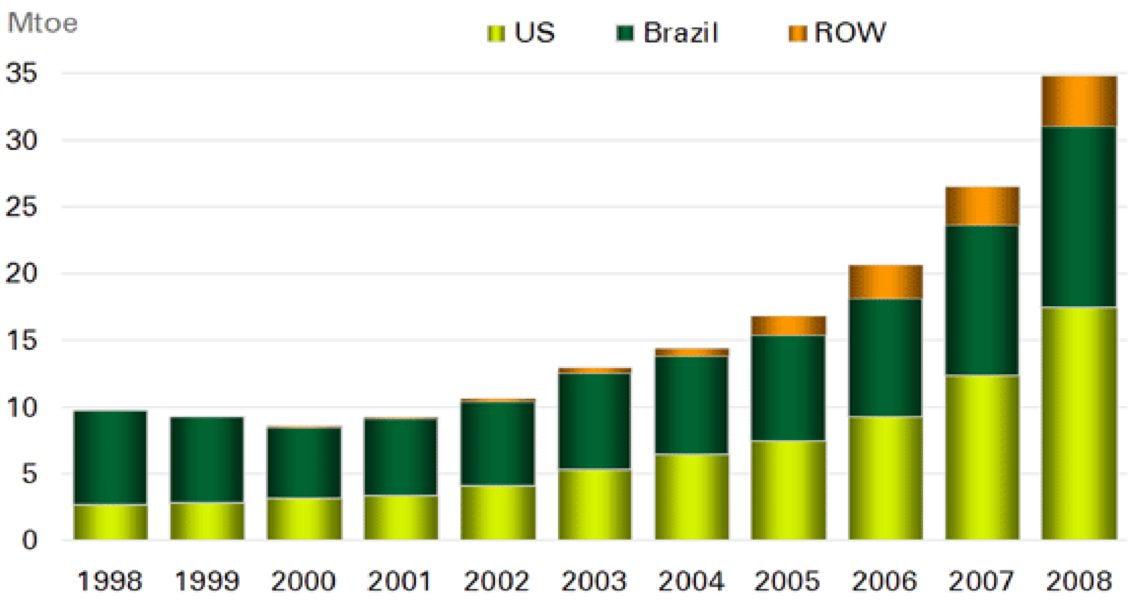
4) 브라질에서는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및 휴대폰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가령, 2008년 자동차 판매량은 3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보급대수가 1억 2천 1백만 대로 세계 5위의 휴대폰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5) 조규형 주브라질대사, "또 다른 중남미 브라질"(2008년 11월 13일 매일신문)

6) 브라질은 국토면적이 약 851만㎢(이중 66%가 산림)로 남미대륙의 거의 절반(47.3%)을 차지한다. 국토의 종단길이는 4,320㎞, 횡단길이는 4,319㎞에 달하고,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남미의 모든 국가와 접경하고 있다.

7) 아마존 지역은 브라질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를 관통하는 아마존 강의 유역면적과 유량은 세계 최대 규모이다.

8) 브라질에는 철광석(세계 최대의 철광석 회사 Vale사)을 비롯하여 보크사이트, 니오븀, 주석, 리튬, 흑연, 망간, 알루미늄, 금, 주석 등 70가지 이상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아마존 지역은 정확한 매장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 세계 16위(2008년 말 기준 126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중이나, 최근 Tupi(50-80억 배럴 추정), Carioca(330억 배럴 추정) 등 대규모 유전들이 발견되어 브라질을 흥분시켰다. Carioca 유전의 경우 사우디(가와르 유전), 쿠웨이트(버간 유전)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유전으로 평가된다. 천연가스의 매장 추정량은 남미 전체의 40%인 5조 입방미터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브라질 에탄올 생산량

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 분야 선도국이며, 세계 경작가능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광활한 토지에 다양한 농업기술을 가진 농업대국[9)]이기도 하다.

셋째,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산업대국[10)]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초의 비행기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 상투스 뒤몽을 낳은 세계적 중형항공기 기술 보유국이다.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ás)는 뛰어난 심해저 유전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게

9) 브라질은 사탕수수, 커피, 오렌지 주스, 소고기, 닭고기 수출 세계1위의 국가이다. 농업은 전체 고용인구의 1/4로서 수출의 35% 및 GDP의 8%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7천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며, 2억 마리 이상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브라질은 현재 약 6,200만 헥타르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의 전체 현재 경작지에 해당하는 1억7천만 헥타르를 새로운 경작지로 조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10)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제조업 수준을 갖고 있다. 세계 3위의 항공사인 엠브라에루(Embraero), 세계 최대의 맥주회사인 잉베비(Inbev)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도 세계 6위권이다. 우주항공, 생명공학, 건설,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브라질의 기술은 수준급이다.

다가 경제안정화를 바탕으로 리우-상파울루 간 고속전철[11]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계자본과 기술이 브라질로 질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전통적 지지 세력이자 협력 파트너이다. 중남미 최대국가로 역내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및 남미국가연합(UNASUL) 등의 핵심국가로서 지역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DDA 협상에서 개도국 그룹을 주도하고, 우리와 함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BSA[12] 정상회의, BRICs 정상회의, 남미-아랍 정상회의, 남미-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다.

반면, 브라질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은 어떨까? 브라질도 전방위 외교망 확충의 일환으로 한・중・일 및 인도 등 지리적으로 먼 아시아국들과의 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장개척, 활발한 경제・통상 증진 및 투자유치는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브라질은 한국이 우수한 인적자본 형성과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지향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13]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조선, IT산업, 생명공학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

11) 리우-상파울루-캄피나스 구간으로 총연장 520km, 총사업비 약 25조원 규모(추정)의 프로젝트이다.

12) 2003년 6월 인도-브라질-남아공 3국간에 구축된 정기적 대화협의체로서, 고위급, 각료급회의 및 정상회의가 있다.

13) 브라질 정부는 1978년도 이전까지는 브라질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으나 이후 역전되어 현재 한국이 브라질 국민소득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답게 한국의 청계천 복원사업 등 녹색성장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양국이 누리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비중에 걸맞게 상호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해지면서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브라질에 더 많은 한국을, 한국에 더 많은 브라질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동반자일 것이다.

3. 한-브라질 관계강화 방향

한국과 브라질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각각 대표하는 신흥경제 강국으로서 다차원적으로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므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가 더욱 필요함에 따라 양국 협력 분야 모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외교적 협력 강화이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중견국가이자, 역내중심국으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응분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설치, 활용하는 상호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양국 정상외교, 고위정책협의회나 공동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다방면 실질협력 증진이 필요할 것이다[14].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간에 합의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브라질 포럼[15]에서 제시된

14) 양국이 연례 유엔총회, G-8 확대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5) 한-브라질 포럼은 양국의 정부, 의회, 재계, 언론계, 학계, 사회문화계 등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화체로 ①양국 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

비전과 전략 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경제·통상·투자 협력강화이다. 양국 간 무역규모가 2008년도 100억불을 돌파하였으나 사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의 2%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서 향후 더욱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6]. 향후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측은 2007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09년에는 향후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협의체 발족에도 합의[17]하였는데, 앞으로 역내 주도국인 브라질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누계액은 14.7억불(총 205건)로 최근 4년(2004~2007) 동안 10배가량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규모는 2007년도 기준 3백만 불에 불과한 상태로 잠재력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은 현재 브라질에 전자제품 및 휴대전화 생산, 철광산 개발, 철강 원료가공 및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개발 잠재력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18].

이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②회의결과를 양국 정부 및 주요 관련기관에 전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③상호 대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서 참고토록 하며 ④각계 고위인사들 간의 교류협력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족되었으며, 2005년 이래 총 4회 개최되었다.

16) 사실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는 우리의 최대 흑자시장이다. 2003년 이래 우리의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교역액 470억불, 흑자액 195억불로 우리나라 제1의 효자시장으로 부상하였다.

17) 이를 위해 2009년 7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가 체결되었다.

18) 가장 최근 우리 기업 진출사례로서 삼성중공업은 2008년 페트라브라스로부터 15억불 규모의 시추선 2척을 수주하였고, 2009년에는 브라질 최대 조선소(삼성중

먼저 브라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리우-상파울루 고속철 사업에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입찰예정인 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경우 양국간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브라질 상투스(Santos) 분지에서 약 500억 배럴의 대형 심해 유전들이 발견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유전개발을 위한 시추선과 '부유식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F: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등 해양플랜트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아울러 바이오 에탄올 강국인 브라질과 바이오 연료생산을 위한 기술·정보·정책 교류도 중요한 협력 분야이다. 브라질이 2030년까지 향후 8기를 건설할 계획인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브라질과의 농업협력도 절실하다. 구조적 곡물 수입국가로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26.5%(쌀 98%, 밀·옥수수·콩 0.2%~7%) 수준인 우리로서는 해외 식량 확보의 전초기지로서 브라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19].

이를 위해 정부는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와 자원협력위원회, 농업협력위원회 등 양국 간 제도화된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각국의 비교우위 파악과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고

공업이 지분 투자 및 기술 지원) Atlántico Sul를 통해 15만 톤 규모의 유조선 건조 발대식을 가졌다. 또 해운회사 STX팬 오션은 2009년 9월 브라질 철광석회사인 Vale사와 2011년부터 25년간 최대 58.4억불(약 7조원) 규모의 장기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19) 농촌진흥청과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은 해외협력연구센터(RDA Abroad Virtual Laboratory, RAVL) 설치 목적으로 2008년 MOU를 체결하여, 농업 과학기술 분야(작물, 축산, 환경, 농업공학 등)에 대한 연구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동일환으로 EMBRAPA는 농촌진흥청에 아시아협력연구센터(LABEX ASIA)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기 위해 국가 이미지 브랜드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할 것이다.

셋째, 소프트파워(soft power) 구축을 위한 문화협력 강화이다. 브라질은 축구와 삼바의 나라로 우리국민에서 친숙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술, 영화, 건축, 전통미술 등 아름답고 풍요로운 다양한 문화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협력 가능성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의 기반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인 문화공동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문화교류의 시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브라질 문화협회, 지방자치 단체 간 자매결연[20]이나 주요 대학 간 학술교류, 연구소간 MOU 체결 등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원 및 연구센터 건립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관련 협력 강화이다. 아시아와 중남미의 중견국가인 한국과 브라질 양국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엔, G-20,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의 회원국인 양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세계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결어: 또 다른 50년을 위하여

한국과 브라질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20) 서울시와 상파울루 시, 부산시와 리우데자네이루 시 등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급속한 발전으로 지리적 개념이 무의미해졌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식민지 지배, 독립, 쿠데타와 권위주의 정권 등의 시기를 거쳐 비슷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런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1959년 국교 수립한 이래 금년까지 50년 동안 양국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더욱 성숙된 방향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금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남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읽고, 우리외교는 새로운 50년을 위한 브라질과의 관계발전을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고전적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가치, 비전, 미래전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기존의 그릇으로 담기에 현재의 양국 관계가 커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금융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이슈들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국제정치 환경도 너무나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우리에게는 브라질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도 중요하다. 또한 민간분야로부터의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상상력과 신선한 창의력의 공급도 필요하다. 결국 브라질이라는 기회의 창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국 협력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전홍조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심의관

OTHON